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김 은 영

2009년 8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지도교수 김 양 순

김 은 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김은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年 8月

<국문초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김 은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양 순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학교교육 및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며 아동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내 초등학교 4개교에서 5·6학년 600명을 표집하여 최종 56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검사도구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인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하영(1991)이 변안하고 김순영(2006)이 수정한 것을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교우관계 검사 도구는 이주리(1994)가 제작한 교우관계 검사 도구 중 초등학교 고학년 활동을 위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생활 적응 검사 도구는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이하영(2002)이 중고등학교에 사용하고 노수미(2003)가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검사도구는 전공교수님의 안면타당도를 구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WIN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test, ANOVA,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학력, 가정 분위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은 가정 분위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과 모-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은 둘다 가정분위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는 가정 분위기를 화목하고 긍정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교우관계의 관계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형 가정의 아동이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문제형 가정의 아동은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님과 개방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수용 받고 생각을 표현하는데 솔직하므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교우관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지각해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자녀간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경험한 아동들은 교우관계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므로 교우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도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형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 모두 독단적으로 훈계나 지시를 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기 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바탕으로 자유로운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고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 때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순조로움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우관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도에서는 교우관계가 좋은 아동의 학교적응도 역시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정서적 지지, 교환 활동, 공동 활동의 긍정적 측면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은 전 영역에서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로 볼 때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지향해야 아동의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학교생활 적응력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4
2. 교우관계의 정의 및 형성 요인	9
3. 학교생활 적응	11
4. 선행 연구 고찰	14
III. 연구 방법	17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7
2. 측정도구	17
3. 자료 분석	20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
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교우관계, 학교생활 적응의 일반적 경향	22
3.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25
4.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27
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30
V. 결론 및 제언	33
1. 결론	33
2. 제언	34
※ 참고 문헌	36
Abstract	43
부 록	46

표목차

<표 III-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18
<표 III-2> 교우관계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19
<표 III-3> 학교생활 적응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0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
<표 IV-2>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 평균과 표준편차	23
<표 IV-3> 아동의 교우관계 평균과 표준편차	23
<표 IV-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평균과 표준편차	24
<표 IV-5>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분석	25
<표 IV-6>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분석	28
<표 IV-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3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령기 아동에게 학교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곳이다. 초등학생들에게 학교는 매우 중요한 곳이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 형성된 적응능력은 전 생애적인 발달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생활에서 아동의 적응 능력은 긍정적인 인성과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고, ‘외톨이’, ‘왕따’ 등의 문제가 전체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외톨이인 아동은 교우관계에서 문제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혼자 노는 데 익숙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다보니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사회성 형성에 큰 장애 요인이 되며 성장한 이후에도 대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초등학교에서의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왕따’라고 불리는 집단 따돌림 현상 또한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비슷한 또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대상이 순환적이라는 점에서 원만한 교우관계 필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을 잘 못하는 아동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 심각한 경우 비행행동을 일삼거나 제도적으로 자퇴가 인정되지 않는 초등학교에서도 등교를 거부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이 학교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들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제도적인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이차

기하기 전에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부적응을 결정짓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적 요인인 성격, 공격성, 정서조절 능력, 자아존중감, 자아 효능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있어 왔다(이아영, 2007).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개인적 요인 형성의 기초인 가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가정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가족의 형태 등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보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나 부모의 양육방식이 초등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술이나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관련 연구는 많으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경우에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부모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보다는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로 가정 내의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이므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부모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들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문제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폐쇄적이고 문제형인 의사소통은 갈등을 심화시켜 여러 가지 부적응을 불러일으키기 쉽다(허주연, 2005).

이와 같이 부모-자녀 간의 고정된 의사소통의 방법은 아동들의 성격형성이나 대인 관계 기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거나, 교사와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부모-자녀 간의 의사

소통 방법은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 리더쉽, 담임교사와의 관계, 유머활용 능력, 친구들 간의 인기도 등에 관한 것이 있다. 교우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

초등학교 아동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많은 시간을 경험하는 사회가 학교라고 할 수 있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우관계이다. 교우관계가 좋은 아동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하게 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반면 교우관계가 좋지 못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하면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아동기에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학교생활 적응과 교우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관계가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련지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교우관계 증진과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효율적인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가 있는가?
- 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교우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 적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정의

아동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인데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의사소통은 상호교환의 의미를 가진다. 의사소통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둘 이상의 사람이 정보획득이나 친밀감의 형성 등의 목적에 맞도록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의사소통은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을 발생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지선영, 2005).

의사소통은 전달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과정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므로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전달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없다. 의사소통의 개념에서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보다는 메시지의 전달 방식이나 전달과정을 중요시하여 의사소통을 다른 사람의 정보 즉, 생각, 의견, 사실,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최홍규, 2000).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언어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메시지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사회학자 Albert Mehrabian(1971)에 따르면 메시지 전달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7%, 목소리(음조, 억양, 크기)등 반언어적 표현이 38%인데 비해 비언어적인 표현이 55%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언어적인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메시지의 전달과정이라고 하는 연구자도 있다(정명희, 1998).

이순자(2002)는 의사소통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으로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형성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인 형태와 비언어적인 형태로 메시지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양영미(2003)는 의사소통을 사람들 간에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상징적 처리를 사용하여 생각이나 감정, 정보, 태도 의견 등을 교환하는 순환적인 상호교류의 과정으로서 그 안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적,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타인과 상호 교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 간에 언어적,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관계이며 자녀는 부모와의 동일시나 모방을 통하여 생활습관이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삶을 통해 자녀를 교육한다. 자녀의 성장에 부모요인은 성격형성, 대인관계 형성, 사회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한 개인의 일생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을 통한 부모와의 경험공유를 통해 상호관계 확립 혹은 관계 확인에 자신감 및 안정감도 획득할 수 있다(정연호, 2004).

이처럼 부모와 자녀는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분석하는데 주요 수단이 되는 것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방법이다(김정선, 1995). 부모-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신뢰롭고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부모-자녀간의 적절하지 않은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 많은 부적응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김수연, 1997).

Adams(1980)는 청소년기의 갈등이나 반항의 원인은, 청소년기 자녀들이 주관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긴밀히 대화를 하고 자녀들 역시 자녀들끼리 서로 긴밀한 대화를 하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긴밀한 대화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Rueter와 Conger(1995)는 온정이 넘치고 지지적인 가정 분위기는 부모-자녀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적대적이고 고압적인 가정 분위기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견 불일치와 가정의 기능마비를 불러온다고 하여, 역기능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김경원, 이희자(2000)는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복적이고 친밀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관계로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모든 인간의 행동양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 양식을 내면화하여 발달시켜 나가기 때문에 부모의 대화하는 방식이나 태도, 내용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연문희(1992)는 가정에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도록 애쓸 필요가 없이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여 줌으로써 정화작용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돕는다.

둘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간관계를 돈독히 한다. 상대방의 의사를 서로 존중하며 그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여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화를 주고받는 부모와 자녀는 공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하나가 된다.

셋째, 자녀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자주적이며, 책임감 있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그들의 타고난 자아실현의 경향을 믿는 까닭에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도록 허용하고 격려한다. 반면 일방적으로 명령이나 경고, 지시, 충고, 설득, 훈계, 비난하는 가정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은 타율적이고 소극적이며, 준공하거나 반항하는 무책임한 인간이 되기 쉽다.

넷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존경하게 한다. 부모는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녀들도 부모의 뜻을 존중하게 된다. 가족은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교환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을 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과 불만을 표현하거나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많은 양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므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간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이상적인 의사소통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으로써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으로 대화할 때, 세대 간의 차이를 좁혀 주고 물이해에서 오는 갈등을 감소시켜 주며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지선영, 2005).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초기가 자녀 및 부모,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민하영(1991)의 연구에서는 이 시기가 되면 기존 관계의 붕괴로 인한 상호작용 패턴과 역할의 재조정 및 부모와 자녀 관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초기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재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가정 내에서 부모가 낯이 변화하는 자녀들과의 접촉과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자녀들의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자녀들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부모들은 자녀들과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을 표현해야 한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Barnes & Olson(1982)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모형(Circumplex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유형과 그것을 방해하는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은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명확하고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 공감, 반영적 경청,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 해결 기술 등을 의미한다.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유형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을 주저하고 주제선택에 조심하며, 부모로부터 비난적인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문제형 의사소통유형은 부

정적인 의사소통유형으로 모순된 메시지, 부정적인 발언이나 빈약한 문제해결 기술 등을 의미한다.

둘째, Gordon(1975)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I-message(나-전달법)와 You-message(너-전달법)로 나누었다. I-message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전달함으로써 부모의 생각과 느낌, 입장을 자녀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정직하게 개방하도록 돕게 된다. 반면 You-message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명령, 경고, 설교 등으로 자녀를 비난하거나 자녀를 평가하는 의사소통유형으로 부모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You-message는 자녀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해결책 제시), 또는 자녀에게 자신은 어떻게 나쁜 아이인가(비난 혹은 평가)라는 식의 해석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I-message일수록 자녀 자신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다. I-message는 부모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부모와 자녀 관계에 보다 건전한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녀 자신이 지도록 하여 행동변화에 무한한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부모의 정직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자녀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 때 자녀 쪽에서도 정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은 크게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개방형, I-message)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문제형, You-message)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rnes & Olson(1982)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을 개방형과 문제형으로 구분하였다. Barnes & Olson(1982)의 의사소통 유형은 비교적 단순하고 그 형태가 비교적 덜 복잡하여 자녀와 부모 사이의 형태를 분류하는데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그 분류차원인 개방형과 문제형은 우리나라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양현아, 2003). 더 나아가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구분지어 살펴 보기에 적합하다. 개방형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억압받지 않고 자

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유형을 의미한다. 문제형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의사교환을 주저하고 주제선택에 조심하며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의사소통유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자녀는 부모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도 충족되고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방법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아동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형성된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우관계의 정의 및 형성 요인

1) 교우관계의 정의

교우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영역으로 큰 의미를 지니며 친구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며 애정을 가지고 상호 의존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교우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영역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Hartup는 교우관계에 대하여 애정이나 관심, 흥미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타인의 접촉을 유지하는 이원적이며 독특한 애정관계로 정의한 바 있다(이현정, 1994, 재인용). 이희승(1982)도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귀면서 애정과 존중을 가지고 타인에게 애착하는 관계로 교우관계를 설명하였다.

교우관계는 다른 관계와는 달리 몇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니고 있다.

첫째, Furman은 교우관계는 참여를 위한 행동이나 책임감을 부여하는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을 수반하며, 이러한 규칙이나 규범은 어떤 중복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과의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규칙과 규범과는 구분되어 진다고 하였다.

둘째, 교우관계가 단순히 아는 관계와 다른 또 하나의 차원은 애정적인 차원으로
로서 교우사이의 애정적 관계는 그저 아는 사이의 관계보다 더 강한 것이며 그
책임감에 있어서도 더 강하다는 것이다. 즉 교우관계는 광범위하고 친근한 상호
작용을 내포하는 대인관계로서의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교우관계는 인기도와는 별개의 것이다. 인기는 그 집단에 의해 일반적
으로 좋아하는 정도와 관련지어 지는 것인 반면 교우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특
별한 관계와 관련되는 것이다. 물론 인기 있는 아동이 사교적이며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인기의 결정과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동일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이 친구와 사귄 때에는 반드시 인기가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김
민정, 2004, 재인용).

교우관계에 있어 주요 영역은 교우관계에 대한 아동들의 개념이나 기대, 관계
의 형성과 유지, 갈등, 종결, 그리고 회복 등 그 과정의 양상으로 압축될 수 있
다. 교우관계를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성숙 및 발달단계에서의
상이한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수준의 복합적 차원의 개념으로 인지발
달이나 사회적 경험들의 요소와 깊이 관련되는 것이다. 즉, 교우에 대한 정의 및
기대는 인지적 발달보다는 특정 친구와의 경험을 통해 강한 영향을 받는 교우관
계의 실제적 측면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자녀수가 많지 않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여
아동들이 가정 이외의 시설에서 비슷한 연령의 친구들과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동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올바른 성격을 형성
하는데 교우관계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부모나 성인은 일방적으로 아동에
게 사회의 규범이나 문화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존재이다. 그러나 아동의 교우
관계는 아동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주고, 아동
자신이 주위로부터 사회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며, 아동의 자
아개념이나 도덕성이 발달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이
은혜 · 고은주, 1999).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란 애정과 존중을 가지고 타인에게 애착하는 지속적이
고 양방향적인 관계이며 강한 상호관계 즉 상호의존성, 자발성, 친밀감을 지니고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라고 정의하였다.

2) 교우관계 형성 요인

아동들이 친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 요인은 유사성으로 연령, 성, 학교에 대한 태도이다. 아동들은 공부에 대한 욕구와 가치인식이 유사하면 쉽게 친구가 된다. 또한 놀이, 음악, 운동 등 학교 바깥에서 하는 활동의 유사성 또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요인은 친사회적 특성으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명료성, 교우관계가 지속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갈등 극복 능력,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적절히 드러내는 자기표출 능력 등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여러 주요 사회적 특성이 아동기에도 이미 교우관계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정정화, 2008, 재인용).

이와 같이 교우관계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으로 또래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개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함께 공유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교우관계 형성에 부모와 교사의 지원과 촉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학교생활 적응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도 한다. 인간은 살면서 여러 집단에 소속되고 또 여러 집단을 형성하면서 삶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 간다. 이는 가족, 친구, 학교, 회사 등의 여러 사회집단과 개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인 존재로 잘 살아가려면 적응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응은 환경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소극적 의미와 환경을 자신에 맞게 변화시키는 적극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즉 환경과 자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적응을 단순히 환경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자신을 일치시키는 소극적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개체와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달성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즉 적응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 동화와 조절의 과정이 모두 중요함을 알 수 있다(조민희, 2008, 재인용).

따라서 적응은 인간이 보다 만족한 상태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 환경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정 다음으로 학교라고 볼 수 있다.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동의 주 생활영역은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간다. 학교는 아동이 사회 환경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또래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이를 하면서 사회성을 익힌다. 그러므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초등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아동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보다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마친 후 그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및 신념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그 나름대로의 제도, 규칙, 풍토, 전통을 기반으로 한 여건들로 학생들에게 기대와 통제를 부여한다. 이들 학교의 여건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등을 포함하여 학교생활의 구성요소인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 등 학생들이 받는 교육적 총체를 통틀어 말한다.

학교생활 적응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며,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교사, 또래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은영, 2006).

학교생활 적응이란 개인의 욕구가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수용적인 느낌을 받거나 만족감을 얻음으로써 갈등이 없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즉 개인이 학교 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알맞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규범, 그리고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행동이다. 또한 대인관계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균형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소속감과 희망, 꿈을 갖고 있는 상태를 경험한다(김동연, 2002).

안규복(1986)은 학교생활 적응을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지식, 가치관, 행동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을 학교라고 할 때,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정은주, 200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적응과 부적응의 이분법적인 분류보다는 적응도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더 중요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 적응도의 수준은 개인의 지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Ladd, Kochenderfer, & Coleman(1996)은 학교 환경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감정에 초점을 두고 학교적응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적응을 아동이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편안해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학교 적응의 각 영역은 아동의 이후 교육활동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했다(차유림, 2000, 재인용). 즉 학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아동은 학교적응도의 수준이 높고,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아동은 학교적응도의 수준이 낮다고 본 것이다.

또한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환경을 수용하여 환경과 개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안영복, 1984). 아동이 학교환경을 수용하거나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의도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킨다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아동이 지각하는 학교적응도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므로 교사, 교우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4. 선행 연구 고찰

청소년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에서 김양숙(1995)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가정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가정에 대해 만족할수록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가정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부정적 의사소통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에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관계에 관한 박의숙(200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또래관계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순기능적 의사소통이 또래관계에서 우의, 정서적, 사회적지지, 인기, 또래만족 등 또래관계의 긍정적 요소를 높여주어 또래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며,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부-자녀간의 의사소통보다 또래관계의 질과 관련하여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풍토상 아버지가 학력이 낮을수록 상호 감정 교류적 의사소통보다는 부모의 편협한 의지로 강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경향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교우관계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성숙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화법을 배우기 위해 효율적인 부모의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자옥(2007)의 연구에서는 부의 의사소통은 교우관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

지고 있으나 모의 의사소통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일 때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좋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 중에 특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문제가 없을 때 아동은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전귀연·최보가(1995)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긴장이 청소년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로부터의 거부는 학교적응의 실패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서명성(1998)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할 때에는 자녀에게 부적응 행동이 유발되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해 준다면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정유진(1999)의 연구 결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비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정도가 학교생활 적응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 행동과 더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최재숙(2001)의 자녀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결과 둘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개방형 의사소통 집단의 자녀들이 문제형 집단의 경우에 비하여 학교생활 모든 영역에서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차유림(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감정이입과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

인 문제기술을 가진 유형일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박지현(2003)의 연구 결과, 가족 구성원 간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정의 자녀일수록 학교에 더욱 긍정적으로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정지연(2007)의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집단별 학교적응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개방형 집단이 문제형 집단보다 학교적응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의 경우, 노성향(1994)의 연구 결과,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가 개방적이고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부적응적인 행동이 많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 부적응 행동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빈도가 적게 나타나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많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심원희(2003)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부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부적응 행동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의 공통점은 부모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에 더욱 긍정적으로 적응함을 알 수 있다.

요즘에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들은 신체적 성숙도가 과거의 청소년기와 크게 차이가 없고,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정보로 인해 사춘기를 빨리 겪게 되면서 이로 인한 교우관계나 학교생활 적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대부분이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며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을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 4개 초등학교 5·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08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6학년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사전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측정 질문지는 Cronbach's $\alpha = .88$, 교우관계 측정 질문지는 Cronbach's $\alpha = .90$, 학교생활 적응 측정 질문지는 C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09년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먼저 담당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600를 배부한 것 중에서 592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와 기재누락이 많은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69매의 설문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인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하영(1991)이 번안하고 김순영(2006)이 수정한 것을 전공교수님의 안면타당도를 구하여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했다.

이 질문지에서 척도는 개방형과 문제형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 유형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의사소통 유형	문항번호	문항수	α.	
			부	모
개방형	1, 3, 6, 7, 8, 9, 13, 14, 16, 17	10	.88	.91
문제형	2, 4, 5, 10, 11, 12, 15, 18, 19, 20	10	.75	.79

개방형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상호작용에 억압감을 느끼지 않으며, 자유로운 감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개방형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고, 문제형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2) 교우관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교우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주리(1994)가 제작한 교우관계 검사도구 중 초등학교 고학년 활동을 위한 도구를 전공교수님의 안면타당도를 구하여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였다.

본 교우관계 척도는 정서적 지지 9문항, 교환적 활동 4문항, 공동 활동 7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우관계의 문항구성 내용과 신뢰도 계수는 <표 III-2>와 같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로 이루어진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III-2> 교우관계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교우관계	내 용	문항번호	문항수	α.
정서적 지지	교우간의 위로, 애정, 충고, 인정, 칭찬 등의 정서적 지원	1, 2, 3, 4, 8, 9, 10, 11, 12	9	.87
교환적 활동	교우 간의 도움주기와 물질의 교환을 통한 협동	5, 6, 7, 20	4	.74
공동 활동	교우 간에 함께 놀기, 함께 지내기를 통 한 행동적 참여	13, 14, 15, 16, 17, 18, 19	7	.72
전 체			20	.90

3) 학교생활 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이하영(2002)이 중고등학교에 사용하고 노수미(2003)가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을 전공교수님의 안면타당도를 구하여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였다.

본 학교생활 적응 척도는 교사관계 8문항, 학교친구 8문항, 학교수업 8문항, 학교규칙 6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학교생활 적응의 문항구성 내용과 신뢰도 계수는 <표 III-3>과 같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로 이루어진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역문항의 경우는 역채점하여 계산하였다.

<표 III-3> 학교생활 적응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학교생활 적응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a.
교사 관계	교사와의 관계, 도움 요청, 꾸중에 대한 반응, 긍정적 감정 표현의 적절성	1, 4, 7, 11, 15, 19*, 23*, 27	8	.76
학교 친구	친구관계, 학급 생활의 적극성, 친구에 대한 관심	2, 5, 8, 12, 16, 20, 24*, 28*	8	.75
학교 수업	수업시간 주의 정도, 호기심, 학업의 어려움, 과제 해결	3, 6, 9, 13*, 17, 21, 25*, 29*	8	.73
학교 규칙	당번 활동, 시설물 사용, 질서유지, 규칙준수	10, 14, 18, 22, 26*, 30	6	.70
전 체			30	.84

* 역채점

3. 자료 분석

자료처리는 SPSS(WIN 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 3)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 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배경 변인		빈도	백분율	배경 변인		빈도	백분율
성 별	남자	281	49.4	학 년	5학년	286	50.3
	여자	288	50.6		6학년	283	49.7
형 제 수	외동	52	9.2	출 생 순 위	말이	211	37.1
	1명	323	56.8		중간	88	15.5
	2명	160	28.1		막내	227	39.9
	3명 이상	34	6.1		외동	43	7.6
부 연 령	40세 이하	85	14.9	모 연 령	40세 이하	231	40.6
	41-45세	234	41.1		41-45세	212	37.2
	46세 이상	150	26.3		46세 이상	126	22.1
부 학 력	고졸 이하	185	32.5	모 학 력	고졸 이하	249	43.8
	대졸 이상	384	67.5		대졸 이상	320	56.2
가 정 분 위 기	매우 화목함	170	29.9	경 제 수 준	상	50	8.8
	비교적 화목함	245	43.1		중상	159	27.9
	보통	131	23.0		중	333	58.5
	화목하지 않음	23	4.0		하	27	4.75
부 직 업	전문직	65	11.4	모 직 업	전문직	69	12.1
	사무직	244	42.9		사무직	130	22.8
	판매직	97	17.0		판매직	129	22.7
	생산직	156	27.4		생산직	53	9.3
	기타	7	1.2		주부	188	33.0
전		체				569	

<표 IV-1>에 의하면 아동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49.4%, 여학생이 50.6%였고, 학년분포는 5학년이 50.3%, 6학년이 49.7%였다. 아동의 형제수는 외동 9.2%, 1명 56.8%, 2명 28.1%, 3명 이상이 6.1%였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맏이가 37.1%, 중간이 15.5%, 막내가 39.9%, 외동이 7.6%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40세 이하 14.9%, 41~45세 41.1%, 46세 이상 26.3%로 41~45세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40세 이하 40.6%, 41~45세 37.2%, 46세 이상 22.1%로 40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하 32.5%, 대졸 이상 67.5%,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 43.8%, 대졸 이상 56.2%로 대졸 이상이 많았다.

가정 분위기는 매우 화목함 29.9%, 비교적 화목함 43.1%, 보통 23.0%, 화목하지 않음 4.0%로 비교적 화목함이 가장 많았다.

경제수준은 매우 높음 8.8%, 높음 27.9%, 보통 58.5%, 낮음 4.75%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직 11.4%, 사무직 42.9%, 판매직 17.0%, 생산직 27.4%, 기타 1.2%,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직 12.1%, 사무직 22.8%, 판매직 22.7%, 생산직 9.3%, 주부 33.0%였다.

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교우관계, 학교생활 적응의 일반적 경향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교우관계, 학교생활 적응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평균과 표준편차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 평균과 표준편차

의사소통 유형	부		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방형	3.43	.80	3.77	.85
문제형	3.20	.49	3.08	.39

<표 IV-2>에 의하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모두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가 문제형 의사소통 정도보다 높았으며,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문제형 의사소통 정도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형 의사소통유형 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교우관계

아동의 교우관계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아동의 교우관계 평균과 표준편차

교우관계	M	SD
정서적지지	2.98	.78
교환적활동	3.66	.82
공동활동	4.05	.58
전체	3.56	.73

<표 IV-3>에 의하면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들이 교우관계의 하위영역 중 공동 활동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교우관계에 있어 정서적 지지, 교우 간의 도움주기와 물질의 교환을 통한 교환적 활동에 비해 교우 간의 행동적 참여를 통한 공동 활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우 간의 위로, 애정, 칭찬 등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평균과 표준편차

학교생활 적응	M	SD
교사관계	3.18	.68
학교친구	3.54	.66
학교수업	3.26	.69
학교규칙	3.23	.55
전체	3.30	.64

<표 IV-4>에 의하면 학교친구와 학교수업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교사와의 조화로운 관계나 학교규칙을 잘 지키는 것보다 친구에 대한 관심 여부와 조화로운 관계, 학교 수업의 참여도가 조금 높음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분석

배경 변인		N	개방형				문제형				
			M	SD	t/F	S	M	SD	t/F	S	
성별	남자	281	3.46	.76	.86		2.83	.47	1.62		
	여자	288	3.40	.83			2.76	.51			
학년	5학년	286	3.46	.81	.76		3.46	.79	-1.30		
	6학년	283	3.40	.82			3.46	.81			
형제수	외동	52	3.54	.82	.53		2.83	.47	.49		
	1명	323	3.43	.80			2.81	.47			
	2명	160	3.41	.81			2.76	.53			
	3명이상	34	3.34	.77			2.84	.55			
출생 순위	말이	211	3.43	.83	1.67		2.83	.50	.52		
	중간	88	3.34	.81			2.76	.53			
	막내	227	3.42	.79			2.78	.47			
	외동	43	3.70	.70			2.79	.48			
부연령	40세 이하	85	3.42	.10	.39		2.83	.60	.81		
	41-50세	444	3.42	.04			2.80	.47			
	51세 이상	40	3.54	.12			2.72	.43			
부학력	고졸 이하	185	3.35	.87	-1.73*		2.82	.49	.70		
	대졸 이상	384	3.47	.76			2.79	.49			
가정 분위기	매우 화목함	170	3.92	.65	63.99***		2.62	.52	17.93***	a	
	비교적 화목함	245	3.43	.68			2.83	.44			bc
	보통	131	3.00	.73			2.89	.46			b
	화목하지않음	23	2.40	.91			3.29	.44			bc
부직업	전문직	65	3.58	.88	.86		2.87	.60	1.01		
	사무직	244	3.44	.75			2.78	.48			
	판매직	97	3.36	.77			2.82	.45			
	생산직	156	3.39	.87			2.80	.47			
	기타	7	3.47	.53			3.04	.56			

*p<.05, **p<.01, ***p<.001

<표 IV-5>에 의하면 아버지와 의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학력과 가정 분위기이며, 성별, 학년, 형제수, 출생순위, 부연령, 부직업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의 문제형 의사소통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 분위기였고, 그 외의 요인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이었으나 문제형 의사소통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김옥숙(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대화에 적극적이며 자녀를 이해하려는 정도가 높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버지와 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가정 분위기에 따라 매우 화목함과 비교적 화목함, 매우 화목함과 보통, 매우 화목함과 화목하지 않음, 보통과 화목하지 않음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이 가정 분위기를 매우 화목하다고 느낄 때가 비교적 화목함, 보통, 화목하지 않음으로 느낄 때보다 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매우 화목함과 비교적 화목함, 매우 화목함과 보통, 매우 화목함과 화목하지 않음, 보통과 화목하지 않음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이 가정 분위기를 화목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보통, 비교적 화목함, 매우 화목함으로 느낄 때 보다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다고 자녀가 지각할수록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고, 화목하지 못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다는 이미숙(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다고 아동이 지각할수록 아버지와 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으며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미숙(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녀의 성별에 따라 그들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지각하는 데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Barnes & Olson(198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에 따른 부-자녀간 의사소통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는 박은주(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5학년과 6학년 아동이 발달단계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출생순위에 따른 부-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생순위가 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나 대화내용과 별 관련이 없다는 윤미애(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형제수, 모연령, 모직업에 따른 부-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 분위기를 화목하다고 느낄수록 아버지와 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 분위기를 화목하지 않을수록 아버지와 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에 의하면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 모직업이고, 학년, 형제수, 모연령, 모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가정분위기이고, 성별, 학년, 형제자매수, 출생순위, 모연령, 모학력, 모직업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 분석

배경 변인		N	개방형				문제형			
			M	SD	t/F	S	M	SD	t/F	S
성별	남자	281	3.69	.89	-2.12*		2.90	.41	-.98	
	여자	288	3.84	.81			2.94	.38		
학년	5학년	286	3.76	.88	-.16		2.90	.42	-1.17	
	6학년	283	3.77	.83			2.94	.38		
형제수	외동	52	4.00	.83	2.41		2.95	.42	.36	
	1명	323	3.70	.90			2.93	.41		
	2명	160	3.84	.77			2.90	.37		
	3명 이상	34	3.70	.83			2.89	.36		
출생 순위	만이	211	3.75	.94	2.88*		2.92	.39	.01	
	중간	88	3.74	.74			2.92	.40		
	막내	227	3.73	.83			2.92	.41		
	외동	43	4.13	.70			2.93	.40		
모연령	40세 이하	231	3.78	.91	.34		2.90	.91	1.21	
	41-50세	324	3.75	.82			2.94	.82		
	51세 이상	14	3.91	.76			2.95	.76		
모학력	고졸 이하	249	3.74	.91	-.67		2.92	.38	-.07	
	대졸 이상	320	3.79	.81			2.92	.41		
가정 분위기	매우 화목함	170	4.16	.69	32.61***		2.87	.03	4.03**	a
	비교적 화목함	245	3.79	.75			2.91	.02		
	보통	131	3.33	.87			2.98	.03		
	화목하지않음	23	3.11	1.33			3.12	.10		
모직업	전문직	69	3.93	.66	3.70**		2.89	.38	.95	
	사무직	130	3.79	.85			2.91	.44		
	판매직	129	3.80	.83			2.88	.38		
	생산직	53	3.36	.94			2.99	.41		
	주부	188	3.78	.89			2.92	.38		

*p<.05, **p<.01, ***p<.001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가 높다고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자녀의 성별에 관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더 활발하고 원활하게 한다는 김순영(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초등학교 5,6학년 시기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에 대해 동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한 유대감이 깊이 형성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출생순위에서는 막내집단과 외동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그 외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외동인 경우가 막내보다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가정 분위기에 따라 매우 화목함과 비교적 화목함, 매우 화목함과 보통, 비교적 화목함과 보통, 매우 화목함과 화목하지 않음, 비교적 화목함과 화목하지 않음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이 가정 분위기를 매우 화목하다고 느낄 때가 개방형 의사소통 정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라는 황순규(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환경과 상호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허용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매우 화목함과 화목하지 않음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이 가정 분위기를 화목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보통, 비교적 화목함, 매우 화목함으로 느낄 때 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집단과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전문직 집단이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아동의 교우관계나,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문제, 성적, 취미, 진학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 이르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년, 형제수,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개방형과 문제형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형제수에 따른 모-자녀간 의사소통 정도는 차이가 없다는 김순영(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최근 들어 출산율의 저하로 형제수가 많지 않음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어머니와 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지 못할수록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변인		부 개방형	부 문제형	모 개방형	모 문제형
교우 관계	정서적지지	.35***	-.09*	.30***	-.10*
	교환적활동	.36***	-.15***	.28***	-.07
	공동활동	.31***	-.08*	.25***	-.05
학교 생활 적응	교사관계	.33***	-.17***	.29***	-.19***
	학교친구	.39***	-.19***	.29***	-.12**
	학교수업	.40***	-.19***	.33***	-.17***
	학교규칙	.25***	-.14**	.19***	-.07

*p<.05, **p<.01, ***p<.001

<표 IV-7>에서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 감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관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 개방형과 부 문제형, 모 개방형은 모든 교우관계의 하위영역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나, 모 문제형은 정서적 지지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개방형과 모 개방형은 모두 교우관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교우관계는 .25에서 .36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문제형과 모 문제형은 교우관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05에서 .30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이 원만하게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혜진(200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부모와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습득은 아동의 교우관계 형성에 있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부모로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교우관계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우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는 아동들은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지므로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감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는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문제형 의사소통을 지양하고,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 개방형과 부 문제형, 모 개방형은 모든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영역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나, 모 문제형은 학교규칙을 제외한 다른 하위영역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개방형과 모 개방형은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생활 적응은 .19에서 .40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부 문제형과 학교생활 적응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14에서 .19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모문제형은 학교규칙을 제외한 다른 하위영역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12에서

.19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자녀는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미현(2005)의 연구결과와 학교적응을 잘 하는 학생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개방적이고 원활하며, 역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형일수록 학생의 부적응이 높아진다는 박지현(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부모가 아동을 대하는 데 있어서 부모 자신의 기준에 맞춰 억압하고 지시를 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자유로운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 때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제주시 4개 초등학교 5·6학년 569명을 연구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아동의 배경 변인 중 아버지의 학력, 가정 분위기에 따라, 부-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가정 분위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아동의 배경 변인 중 성별, 출생순위, 가정 분위기,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모-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가정 분위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는 가정 분위기를 화목하고 긍정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교우관계의 관계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형 가정의 아동이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문제형 가정의 아동은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님과 개방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수용 받고 생각을 표현하는데 솔직하므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교우관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지각해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이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습득을 할수록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긍

정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져 원만한 교우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부모-자녀 간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경험한 아동들은 교우관계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므로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교우관계 형성에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도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형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 모두 독단적으로 훈계나 지시를 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기 보다는 아동과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고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 때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순조로움을 알 수 있다.

2. 제언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지역 4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고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과 같은 결손 가정을 연구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우관계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교우관계나 학교생활 적응도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학교나 지역사회 단체에서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교육을 실시한다면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의 증가와 학교

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들이 교우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교과와 연계하여 집단 상담프로그램이나 교우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면 아동이 학교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2001).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서울 : 다음세대.
- 강화정(2007). 초등학교의 인기아와 배척아 결정변인 판별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애(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진(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능력과의 관계.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현정(2002). 대화의 기술, 서울 : 경진문화사.
- 권용신·백경숙(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99.
- 김경원·이희자(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83-295.
- 김경화(199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원·이정우(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78-92.
- 김미록(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체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 탄력성과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2007).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감이 또래수용도 및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4). 초등학생의 성격 특성과 유머감각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경(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경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자(2007). 초등학생의 사회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 간의 갈등에 관한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김순녀(2001). 고등학교 청소년의 가정배경, 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과의 관계. 천안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영(2006).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2002). 10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사소통 행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6), 56-61.
- 김영미(2000).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선생님과의 관계 및 학교활동을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심희옥(2000).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4), 159-175.
- 김오남(200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스트레스.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구(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구적 자아개념 및 문제행동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1995). 국민학교 아동의 고민유형과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이영숙(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 김정윤(2000).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학교의 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윤·오원정·이은혜(2001). 아동의 또래 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김진숙·유영주(2001). 어머니와 청년기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64-72.
- 김진희(1998).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 수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또래지위 및 호기심과 청소년 비행 성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민숙(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수미(2003).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학교인성교육과 학교생활적응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진하(200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친구지지 및 교사관계와 학교 적응 간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 · 이영미 · 이윤주(2005). 부모간 갈등과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53-62.
- 민혜영(1990). Curco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애(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 적응성 및 부모-자녀간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미정(2007). 아동이 지각한 교사행동과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두진(2003). 초등학생의 부모 애착과 사회성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신영(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복지감 및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센터(2000). 현대사회와 부모.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 안영복(1984). 적응 및 부적응행동의 특성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미(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란(2007). 초등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 및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학

- 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애(2003). 아버지-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현(2008). 초등학생들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1993).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달호 외(1987). 교육심리학. 서울:학문사.
- 이미숙(2003). 교류분석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현(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자(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2002).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자(200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정생활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외(2001). 아동의 또래 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1994). 아동이 지각한 교우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재천(2000).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과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희(1998). 초·중학생의 목표지향성, 지능에 대한 신념, 인지전략 사용과 학

- 업성취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연호(2004).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2005).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화(200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또래관계의 질 및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진(2006). 어머니와 자녀의 성격적 특성이 또래관계 및 부모-자녀 의사 소통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선영(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내외통제성 및 공격성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유림(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혜연(2000).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자기개념 및 또래 지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승은(2006). 친구관계 유형에 따른 갈등해결 전략 및 친구관계 만족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2005).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리더십, 소속감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숙(2001).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홍규(2000). 아버지와 자녀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주연(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체계가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경미(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순규(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es, H. L.,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rnes, H. L.,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The Circumplex Model. *Family Process*, 56, 438-447.
- Be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a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erndt, T. J., & Keefe, K.(1996). Relations of friendship quality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1), 110-129.
- Collins, W. A., & Russell, G.(1991).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1, 99-136.
- East, P. L.(1991)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of withdrawn, aggressive and sociable children: Child and parent perspectives. *Merul-Palmer Quarterly*, 37, 425-444.
- Gorden, T.(1975).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INC.
- Howes, C.(1983). Patterns of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54(4), 1041-1053.
- Islay, S. L., O'Neil, R., Clafelter, D., & Parke, P. D.(1999). Parent and child expressed affect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odeling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547-560.
- Kerns, K. A.(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friendship quality: Links to child-mother attachment. In Bukowski W. M., Newcomb A. F., & Hartup W. W.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137-157). New York: University Press.
- Ladd, G. W.(1981). Effective of a social method for enhancing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and peer acceptance. *Child Development*, 52, 171-178.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6). Friendship Quality

-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Mehrabian, A.(1971). *Silent message*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 Meliaas, L., Anna-beth, D., & Dorothy.(1999). Developmental Patterns in Security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s with Peer Relations. *Child Development*, 70, 202-213.
- Newcomb, A. F., Brdy, J. E., & Hartup, W. W.(1979). Friendship and incentive condition as determinants of children's task-oriented 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0(3), 878-881.
-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Rubin, K. H.(1980) children's Friendship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Rubin, K. H. & Mills, R. S. L.(1992). Parents' thoughts about children's socially adaptive and maladaptive behaviors: Stability, chan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 47-69.
- Vandell, D. L., & Hembree, S. E.(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ul-Palmer Quarterly*, 40, 461-477.

<Abstract>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Children's Peer Relations and School Life Adaptations**

Kim Eun Yo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ang Soon

This research focused on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children's peer relations and school life adaptations. The research intends to let children, who have difficulties in adapting to school,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types, provide with basic data for school education as well as parents education and help children to have more enjoyable school live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569 children selected from 600 children from 4 elementary schools in Jeju city. As for the test method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PACI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test made by Barnes and Olson(1982), edited by Min Ha-Young(1991) and revised by Kim Soon-Young(2006). And revised that again to meet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Regarding the peer relation test method, for this research the peer relation test method for middle school and higher grades of primary school children

by Lee Ju-Ri(1994) and revised that to meet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As for the test method of school life adaptation, the test method by Lee Ha Young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2002) and test method by Noh Soo-Mi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2003). Both of them are based on "Test paper on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life" by Lim Jung-Soon(1993). And revised those again t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revised and supplemented all test methods by asking specialty adviser regarding face validities.

As for the data processing, SPSS(WIN 12.0) to calculate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did the moment correlation analysis on independent sample t-test, ANOVA, and Pearson's coefficient.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ings.

First, the difference in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dependent on the change cause of children's background. The father-child open-type communication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ent on the education levels of fathers and the atmosphere of the homes. The mother-child open-type communication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ent on the atmosphere of the homes. Both of father-child problem-type communication and mother-child problem-type communication ha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ent on the atmosphere of the homes. The atmosphere of the homes commonly affects the extent of all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therefore, parents need to make the home atmosphere be in love, harmony and positive.

Second, the peer relations dependent on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Children from open-type parent-child communication homes had good peer relations, while children from problem-type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homes had poor peer relations. We can see that children, who had experienced open and easy communications with their parents, can

accommodate their feelings properly and they are honest in expressing what they think. Accordingly, they do not have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 have comparatively positive recognitions and have higher satisfactions on the peer relations. On the other hand, children, who had difficult communications with their parents, cannot have positive communications in peer relations as well. Their peer relations are also not positive accordingly.

Third, school adaptations dependent on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Children with open-type parent-child communications can adapt to school more easily. When parents have open-type communications with their children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sympathy, expressing free feelings and thoughts honest and openly, rather than problem-type communication giving disciplines and instructions based on parents' own judgement, children can adapt to school more easily.

Fourth, school adaptations dependent on peer relations. Children with good peer relations could adapt to school lives easier. This means that better emotional support and higher positive aspects of group or exchange activities would let children's school adaptation capabilities better.

As seen above, the research results prov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in all area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peer relations and school adaptation. This research shows that we should aim for open-type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order to help children to make good peer relations and adapt to school easier.



부
록

설문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생활 적응 및 친구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시험이 아니며,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설문지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논문을 작성하는 기초 자료로만 사용되므로 한 문장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학과 아동학전공 김 은 영

● 다음은 통계 처리에 필요한 기초 조사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거나 숫자를 써 주세요.

1. 성별은? ① 남자 () ② 여자 ()
2. 학년은? ① 5학년 () ② 6학년 ()
3. 나를 포함하여 형제 자매수가 몇 명입니까? ()명

4. 출생순위는 ? ① 맏이 () ② 중간 () ③ 막내 () ④ 외동 ()

5. 아버지의 나이는?

- ① 30세~35세 () ② 36세~40세 () ③ 41세~45세 ()
④ 46세~50세 () ⑤ 50세 이상 ()

6. 어머니의 나이는 ?

- ① 30세~35세 () ② 36세~40세 () ③ 41세~45세 ()
④ 46세~50세 () ⑤ 50세 이상 ()

7. 아버지의 학력은 ?

- ① 초등학교졸업 () ② 중학교졸업 () ③ 고등학교졸업 ()
④ 대학교졸업 () ⑤ 대학원 이상 () ⑥ 기타 ()

8. 어머니의 학력은?

- ① 초등학교졸업 () ② 중학교졸업 () ③ 고등학교졸업 ()
④ 대학교졸업 () ⑤ 대학원 이상 () ⑥ 기타 ()

9. 우리 집의 분위기는 ?

- ① 매우 화목하다. () ② 비교적 화목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화목하지 않다. () ⑤ 전혀 화목하지 않다. ()

10. 경제적 수준은?

- ① 아주 부유하다. () ② 부유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렵다. () ⑤ 아주 어렵다. ()

11. 여러분의 가족형태는 ?

- ① 부모와 자녀 () ②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 ()
③ 한부모와 자녀 () ④ 형제·자매 () ⑤ 기타 ()

◎ 12번과 13번 문제는 보기에서 골라 번호로 쓰세요.

12. 아버지의 직업은 ? ()

13. 어머니의 직업은 ? ()

<보기>	
1. 단순노무자	2. 생산직근로자
3. 운수, 장비운전기사	4. 상점경영(서비스업, 기업)
5. 농장·목장 경영	6. 예술가
7. 언론인	8. 서비스업
9. 판매직	10. 교사
11. 군경(중령, 경정, 대령, 총경)	12. 농업·임업·어업
13. 고급기술직(연구직)	14. 사무직, 행정관리직(공무원)
15. 전문직(교수, 법률가, 의사)	16. 주부
17. 없음	18. 기타 (적어주세요:)

◎ 다음은 아버지와 여러분이 대화하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장의 내용을 잘 읽고 아버지와 여러분의 대화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것에 ○표 해 주세요.

번호	아버지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께 나의 생각을 말한다.					
2	나는 때때로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3	아버지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4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기가 때때로 조심스럽다.					
5	아버지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편이다.					
6	아버지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신다.					
7	나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8	나는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와 의논할 수 있다.					
9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께 대한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다.					
10	아버지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11	나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번호	아버지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나는 아버지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13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14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5	아버지께 나의 고민을 이야기 하지만, 비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다.					
16	나는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가 편하다.					
17	나는 아버지께 숨김없이 애정을 표시한다.					
18	아버지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					
19	아버지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면 창피함을 주면서 꾸중하신다.					
20	어떤 사실에 대한 나의 솔직한 감정을 아버지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 다음은 어머니와 여러분의 의사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의 내용을 잘 읽고 어머니와 여러분의 대화에 대해 가장 잘 나타낸 것에 ○표 해 주세요.

번호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께 나의 생각을 말한다.					
2	나는 때때로 어머니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3	어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4	내가 원하는 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때때로 조심스럽다.					
5	어머니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편이다.					
6	어머니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신다.					
7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번호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어머니와 의논할 수 있다.					
9	나는 어머니께 어머니에 대한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다.					
10	어머니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11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12	나는 어머니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13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14	어머니께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5	어머니께 나의 고민을 이야기 하지만, 비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다.					
16	나는 어머니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가 편하다.					
17	나는 어머니께 숨김없이 애정을 표시한다.					
18	어머니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					
19	어머니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면 창피함을 주면서 꾸중하신다.					
20	어떤 사실에 대한 나의 솔직한 감정을 어머니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느끼고 경험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3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4	내 마음 속의 비밀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다.					
5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다.					
6	나는 학교생활 중 수업시간이 즐겁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선생님을 길에서 뵈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8	나는 친구들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그 친구들을 나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9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당번 활동을 열심히 한다.					
11	선생님은 나를 귀엽게 여기신다.					
12	학업문제를 친구들과 의논할 때가 많다.					
13	각 과목마다 숙제가 너무 많고 벅차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학교의 시설물을 조심히 사용한다.					
15	우리 학교에는 존경할 선생님이 한 분 이상 계신다고 생각한다.					
16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많다.					
1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18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19	선생님들이 너무 명령적이고 딱딱하다.					
20	학급에서 친구들 간에 인기가 있다.					
21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 있는 것이 많다.					
22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23	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24	나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면 좋겠다.					
25	나는 수업시간 중 딴 생각을 많이 한다.					
26	학교는 질서와 규칙을 너무 강조한다.					
27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 이상 계신다.					
28	학교에서 가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29	나는 수업 중 질문을 받을까봐 두렵다.					
30	나는 등교 시간을 잘 지킨다.					

◎ 다음은 여러분의 교우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아플 때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병문안을 온다.					
2	내가 슬플 때 친구들이 위로해준다.					
3	내 친구들은 내 생일을 기억해준다.					
4	내가 잘못할 때는 친구들이 충고해준다.					
5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같이 찾아준다.					
6	내 친구들은 먹을 것을 내게 나눠준다.					
7	내 친구들은 학용품을 내게 빌려준다.					
8	내 친구들은 내가 멋지다고 생각한다.					
9	내가 잘 했을 때에는 친구들이 칭찬한다.					
10	내가 반장이나 학급 간부 선거에 나가면 찍어 줄 친구들이 많다.					
11	내가 말하면 친구들은 대부분 좋다고들 한다.					
12	내 친구들은 나의 좋은 점을 알아준다.					
13	나는 친구 집에 놀러가기를 좋아한다.					
14	나는 친구와 함께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놀이를 한다.					
15	친구들이 싸울 때 나는 싸움을 잘 말린다.					
16	나는 친구와 함께 사 먹기도 하고 문방구에도 같이 간다.					
17	나는 친구와 같이 운동을 한다.					
18	친구들과 함께 놀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참고 논다.					
19	새 친구가 반에 들어오면 다른 아이들보다 친절하게 대해준다.					
20	친구가 청소 당번이면 기다려서 같이 간다.					